

 금융감독원		보도자료		금융은  하게 소비자는  하게	
보도	2025.7.14.(월) 11:40	배포	2025.7.11.(금)		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	책임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임연하	(02-3145-7065)
2025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					

1. 간담회 개요

□ '25.7.14.(월) 금융감독원(김병철 은행·중소금융 부원장 주재)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「2025년 정례 간담회*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'23년부터 은행지주·은행 이사회(이하 '지주·은행')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주·은행 개별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, 지주·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

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요

- ☑ **일 시** : '25.7.14.(월) 11:40 ~ 13:20 (오찬 간담회)
- ☑ **장 소** :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
- ☑ **참석자** : (금감원) 김병철 부원장(은행·중소금융 담당), 김남태 은행검사1국장(은행권)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수협, 기업, SC, 씨티, 아이엠, 부산, 경남, 전북, 광주, 제주, 카카오, 토스, 케이
- ☑ **논의 주제** : ❶은행 본연의 역할, ❷책무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, ❸지배구조 선진화, ❹준법제보 활성화, ❺은행산업의 AI 활용 확대와 위험관리

2. 김병철 부원장 발언 요지

① (**은행산업의 주요 흐름**) 김병철 부원장은 국내은행은 견조한 자산성장률*을 보이며 건전성이나 수익성*도 양호한 모습이지만,

* 최근 5년간 총자산(은행계정) 연평균 7.7% 성장, 당기순이익 연평균 9.9% 증가

-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*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키고,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,

* 국내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(조원) : ('19말) 1,167.1 → ('24말) 1,673.8(명목 GDP의 65.7%)

-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

② **(은행 본연의 역할)** 코로나19 이후 고금리, 경기둔화 지속 등의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

-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에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며,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
③ **(채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)** 채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의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.

- 다만,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보완과 도입 이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
- 경영진의 채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④ **(지배구조 선진화)** 모범관행 발표('23.12월) 이후,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·절차적 개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, 그간 이사회가 보여준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.

- 다만, CEO 경영승계, 이사회에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⑤ **(준법제보 활성화)** 금융사고의 조기 적발과 예방을 위한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에 따라,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('25.4월)하였다고 설명하면서,

- 준법제보가 활성화되어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.

- 6 (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위험관리) 은행권도 다양한 업무영역부터 내부통제 분야에 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,
- 편향성,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·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3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이사회 의장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가 은행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.
 -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며,
 -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경영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-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간담회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,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※ [별첨] 김병철 부원장 모두발언 1부. 끝